

## 주일의말씀

## 보라!

보라!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불살라 버리는 날이 온다.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진 성전이 다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의 징조는 이러하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진리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말하여, 그 날이 온 것처럼, 그 때가 온 것처럼 혼란과 위기가 올 것이다. 신앙의 진리마저 박해 받고 재판받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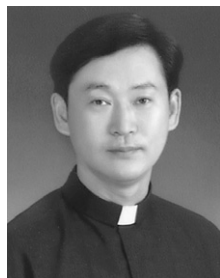
다종교 상황과 종교들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물신의 지배 아래 정의와 도덕이 유린당하고, 다양한 가치관들은 일치하지 못하여 혼란을 증폭한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들마저 박해받거나 무시될 때가 있다. 생존을 위해 살기 바쁜 세상이다 보니, 개인적인 노력과 성공 이후에 하는 자선과 나눔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식의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한다. 종교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가냘프지만 분명한 “화살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일이다. 한 달쯤 전부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매일 오후 5시~7시 사이에 나타나 조용한 성가를 틀어놓고는 사진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

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가슴에 십자가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궁금하여 다가가 물어 보았다. “신부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란 말입니까?” “예, 저는 이 동네에 사는 평범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반대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기도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가 가진 거대한 문제를 안고, 자신이 사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현실 문제와 씨름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성가 “순교자 찬가”가 떠오르면서 어느 신부가 지은 “평신도 찬미가”에 공감이 간다.

교회는 평신도의 고유한 성소는 “재속성”에 있다고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경제, 제도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평신도 교령 13항).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는 “내가 교회 간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 안에서 “내가 교회다, 내가 성사다”라는 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여러분, 힘들죠!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곽재진 베드로 신부  
상모성당 주임

## 생명의말씀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9

말라3,19-20ㄴ 2테살 3,7-12 루카 21,5-19.

## 7. “회장의 본분” 발표와 회장 제도

문화홍보실

첫 교구장님이셨던 드망즈 주교님이 부임할 당시 대부분의 교우들은 공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 대구교구에 설립된 본당은 18개 뿐이었고 신부님도 20명에 불과했지만, 공소는 390개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이 한 공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기껏 3일 내지 4일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기간은 공소회장, 또는 전교회장이 공동체의 대소사를 맡아 일했습니다. 단지 공소를 관리할 뿐 아니라, 공소예절을 인도하고 전교하며 교리 가르치는 일 등이 모두 회장의 직책이었습니다. 즉 복음화의 제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회장님들이었던 것입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회장 직분의 중요성과 직무를 가르치기 위해 1913년에 회장들을 위한 첫 피정을 여시고 본당과 공소회장들을 위한 한국 최초의 지침서인 『회장의 본분』을 편찬하셨습니다. 『회장의 본분』에서는 본당과 공소의 회장들이 매년 피정 때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공부할 것과 본당신부들에게서 필요한 설명을 들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회장의 본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간행의 취지를 밝힙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제뿐만 아니라 사제품을 받지 않은 교우 중 특별한 사람들을 협력자로 두셨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회장들입니다. 회장은 성교회의 특별한 지위와 성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

기 본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큰 천상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 그러니 회장들은 이 책을 자주 보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회장 피정 때마다 이 책을 풀어 가르쳐주십시오. 회장들은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은 오늘, 그 때 주교님을 모시고 피정을 하며 자신이 받은 성소를 묵상하던 우리 선배 평신도 지도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 중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대단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초창기 회장님들은 교육도 그다지 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속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더라도, 우리 선배 평신도 지도자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함”(티모1 3,9)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 교구가 오늘날 이렇게 크고 활발한 신앙공동체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때 회장님들이 하시던 일을 맡아 봉사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드망즈 주교님의 말씀처럼 “성교회의 특별한 지위와 성소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혹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복음화의 제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르침을 잘 듣고 영혼 구원에 힘쓰십시오.”

### 나는 진정 세상의 빛으로?

박성규 엘리시오





## 오늘의미사

평신도 주일  
연중 제33주일

### 입당성가

26 이끌어 주소서

###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봉헌성가

463 순례자의 노래

###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  
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 파견성가

462 이 세상 지나가고

## 영성의향기

### :: 인생의 목적은 하느님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개인적인 성취나 마음의  
평화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  
은 하느님과 일치하여 하느님을 누리는 것  
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존재하기를  
원하시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천  
지의 창조주를 만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삶의 방  
향이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  
적을 향해 살아야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려면 하느님께 여쭙어 보는 것이 제일  
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네 가지 목적, 즉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차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에 물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대구  
주교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 짧은글 - 깊은생각

### 판단하지 맙시다



어떤 운전자가 외딴길을 지나는데, 낯선 사람이 차를 세워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운전자는 그  
냥 지나갈까 하다가 좋은 일 한 번 해 보려고 낯선 사람을 태워 주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의심이 더러 난 운전자는, 자기 품속에 지갑이며 열쇠 따위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차를 길  
가에 세우고는 낯선 사람에게 “당장 지갑 내 놔!”하고 고함을 치며 먹살을 잡았습니다. 낯선 사람  
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갑을 내놓았습니다. 운전자는 그 낯선 사람을 길에 내려놓고는 씩씩거리  
며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정말 고약한 인간을 만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어.”하고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  
었습니다. 운전자의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 오늘 아침에 지갑을 안 갖고  
나가셨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을 모두 아시는 분은 한 분 뿐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대구대교구 10대 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대주교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종홍(그리산도) 몬시뇰  
사제서품 60주년 회경축 감사미사**  
• 일시: 11.20(토) 11:00  
• 장소: 계산동 주교좌 성당

- 모임 / 행사 -

**2011년 말씀과 함께 원화 전시회**  
• 일시: 11.20(토)~27(토) 까지  
• 장소: 바오로딸서원(공평동 425-5185)

- 성소 / 파정 -

**마리아 영성파정 (성체현시,미사안수)**  
• 일시: 11.17(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가을' 조이플 스테이**  
• 주제: 자아 발견  
• 일시: 11.20(토) 18:00~21(일) 15:00  
•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회바: 1만원)  
• 대상: 미혼여성 (신청마감: 11.18(목))  
• 문의: 010-9056-9005(성경, 세면도구)

**예수의 가리파스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1.20(매월 셋째주 토 19:00~21:00)  
• 장소: 마촌1동성당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자 파정**  
• 일시: 11.21(일) 14:00, 칠곡 수련소  
• 문의: 010-3113-6219 (<http://smm.or.kr>)

**바네의 성모 기도회 15주년 추계 대파정**  
• 일시: 11.25(목) 09:00~17:00, 삼덕성당  
• 강사: 이범주(바오로) 신부  
• 문의: 삼덕성당 임마쿨라파의 집 427-7543

**대구가르멜 여자수도원 성소상담**  
• 일시: 08:00~17:00 언제나 가능  
• 문의: 622-4408(carneldg@hanmail.net)  
※매일 컷토 5시 기도에 초대합니다.(대상:젊은이)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파정**

• 일시: 12.23(목) 16:00~25(토) 13:00  
•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파정의 집  
• 참가비: 9만원  
• 신청 및 문의: 054971-0722  
**가르멜 남자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셋째 주일 14:00  
• 장소: 마산 진동 가르멜 수도원  
• 문의: 이인섭 필립보레리 신부 010-3169-7416

- 모집 / 교육 -

**2011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 전형일시: 11.15(월)~19(금) 09:00~16:30  
• 자격: 2004.1.1(목)~12.31(금)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 방법: 아동 및 학부모 면접 후 컴퓨터 추첨  
• 문의: 636-1346 (<http://dg-hyoseong.es.kr>)

**제16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동계 청소년 필리핀 영어연수**  
• 대상: 초4~중3 (착순모집: 35명)  
• 기간: 2011.1.2(일)~2.12(토) 6주, 405만원  
• 문의: 656-6655 (ARS4)

※ 9회 성인해외봉사&어학연수모집중  
**환경위원회 환경교육 모임**  
• 일시: 11.20(토) 14:00~21(일) 14:00  
• 장소: 영천산자연학교, 회바: 7만원  
• 대상: 환경위원회, 청소년 교육위원회  
• 주제: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이 보호하라  
• 문의: 054)338-0530

**제97차 선택 주말**  
• 일시: 11.26(금)~28(일)  
※ 자세한 내용은 대구 선택 카페 참조  
<http://cafe.daum.net/daeguchoice>  
• 문의: 박수진 모니카 010-2566-0474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2차 모집: 10.25(월)~11.30(화)  
• 입시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대학홈페이지(<http://www.csj.ac.kr>) 참조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영어마을**  
• 초·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 모집  
• 캠프기간: 2011.1.3(월)~29(토)  
• 접수기간: 11.22(월)~12.3(금)  
• 접수: [www.gev.ac.kr](http://www.gev.ac.kr)  
• 문의: 054)777-8000

**가톨릭근로자회관 필리핀영어캠프**  
• 장소: 마닐라St. Joseph College  
• 일시: 2011.1.2(일)~30(일)  
• 대상: 초3~중3, 선착순: 20명  
• 특징: 현지초등선생님 직접수업  
• 문의: 253-1313/ 010-9355-5843

**가톨릭선종장례봉사자교육(청통수련원)**  
천주교전통장례예절,선종봉사자임무(40명)  
• 매월 셋째 주토,일(1박2일), 참가비: 5만원  
• 문의: 대가대 평교원 526-3413~5

**가톨릭요새발간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 문의: 476-7774(교제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http://www.footfather.com)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숙경(엘리사벳), 이찬성, 방정희(베르타)  
**11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11.21(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010-8853-7458

| 미 사                  | 일 시              | 장 소  | 미 사           | 일 시              | 장 소    |
|----------------------|------------------|------|---------------|------------------|--------|
|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 11월 15일(월) 오전11시 | 죽도성당 | 한티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 11월 15일(월) 오전11시 | 한티순교성지 |
|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11월 15일(월) 오전11시 | 성동성당 | 김천지역 월말후원회 미사 | 11월 16일(화) 오전10시 | 평화성당   |
|                      |                  |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 11월 18일(목) 오후 2시 | 성모당    |

**대구 큰사랑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한의원 진료 ▶중풍, 말기암,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병원장 김 지 현 의사

**한 신 주 택**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넬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방충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 (마태오) 011-529-7501

**밝은 눈 안과**

원 장 전문의 임흥식(리버팔) 정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영상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늘 시원한 학문외과**

대장 · 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o.com](http://www.hangmunso.com)  
신라대우아파트 북원오거리  
친신교 삼부재육관 분원 ■ 대구은행  
시장은 200m

여러분의건강을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안 심 내 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들안길 네거리~황금성당 사이

**보 석 전문점 미 석**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 (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전국 실시

**성 모 노 인 복 지 센 터**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  
등급 판정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내 가족을 돌봐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  
☎ 달서센터:564-1577, 남구센터:475-1577  
수성센터:781-9057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 (안토니오) 011-503-2404